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12년 당회가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로 교회에서 금요일(14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성탄절 세례입교식을 위한 입교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15일) 오후 2시 교회 어린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안준용 씨와 이진희 씨의 결혼예식이 15일(토) 낮 12시 남원 참조은 웨딩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반기 새교우환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눈이 자주 내립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허정호 백성래 홍춘숙 한숙경 임창선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혜 이소애 이윤정 방극숙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신인경 김광수  
 다음주설거지봉사 : 유상진 한세미 이주율 류정옥  
 새 교 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가움 가운데 내리던 첫눈이 이곳저곳에 빙판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넘어질까 조심조심 종종걸음을칩니다. 그렇게 느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변과 안팎을 살피며 연말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요동치는 이 사회를 공황히 여겨 주십시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가 선출되게 해 주십시오. 상호비방이 아닌 정직한 정책대결을 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구명자 권 순 김경자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이교영  
 김성공 전해민 김성한 조영순 김일랑 이은옥 김정애 김종문 김종술  
 김지호 전해리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김혜영  
 노준우 문금석 민병배 문현미 박미란 박숙영 박시내 박정숙 김용태  
 박준희 배부례 배삼순 서수진 서정순 손성현 안경아 안종일 정현주  
 양재성 오진훈 노순옥 이광용 형인순 이기분 이범석 류정욱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훈 이지훈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임 영 정경례 장영숙 전영자 정두리 정우선 정재정 조수아 주경진  
 이윤정 차혜심 노미향 최미자 한기택 한상경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허호범 박성실 홍선희 홍춘숙 무명2

### 감사헌금:

강순배 김인석 이선화 김정진 김중수 이순정 문복순 민병배 무명4

### 녹색꿈헌금:

김철수 유영남 이범석 류정욱 이범춘 임미심 임창선 장원호 박성희  
 추현영 무명1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영래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장혜숙 노순옥 차혜심 박정숙 진정선 박효선 강순배 구성현 서정순 서조향	연 합 속 화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지나간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고 버르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지나간 것은 그리워진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슬픔은 그래도 힘이 된다고

절망은 희망으로 이긴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가치있는 것만이 무게가 있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소리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다

‘이로써 내 인생은 좋았다’고

말할 수 없어 눈을 감는다

- 천양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십시오. 굽은 길을 곧게 만드십시오. 시대의 어둠을 탓만 하지 말고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십시오.

아멘. 세상의 그릇된 모습을 보며 입으로만 한탄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부끄럽게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당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백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최문희 선생 김승현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정민 장대호 심상숙 이해령 한숙경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12월의 편지

.....1980년대 내가 돌보던 앓던 지원자들이 이번에 서원 25주년을 지내는 모습을 눈물 어린 감동 속에 지켜보면서 이만큼 오래 살았으니 이젠 떠날 때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날 적마다 “좀 어떠세요?” 하고 나의 건강상태를 묻는 이들에겐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암환자의 특성이기에 말입니다.

새벽에 문득 입에서 쓴맛을 느끼며 한 모금의 달콤한 주스를 그리워하고, 어느 순간엔 곁에 있는 종이 한 장도 집기 싫은 무력증에 빠지고, 의사나 환자의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지고, 예측불허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의기소침해지면서 ‘암환자의 고통은 설명 불가능한 것’ 이라는 말을 실감하곤 합니다.

항암과 방사선치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몸의 아픔 못지않은 마음의 아픔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일도 많은 듯합니다. 늘상 ‘명랑 투병’ 하겠노라고 자부해 왔으나 실은 나 역시 내 자신의 아픔 속에 갇혀 지내느라 마음의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시다. ‘잘 참아내야 한다’ 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7이면 5라고 슬쩍 내려서 대답한 일도 많습시다.

병이 주는 쓸쓸함에 맞들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엔 담백하고 잔잔한 기쁨과 환희가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전보다 더 웃고 다니는 내게 동료들은 무에 그리 좋으냐고 되물곤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답으로 들려주던 평범하지만 새로운 행복의 작은 비결이랄까요. 어쨌든 요즘 들어 특별히 노력하는 것들 중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을 달라는 청원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기

도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 주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가끔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양로원과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진 못할지라도 마음을 읽어 주는 작은 위로자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마다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수녀원 복도나 마당을 겨우 거닐다가 뒷산이나 바닷가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적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이웃조차 어찌 그리 정겹게 여겨지는지! 최근에 읽은 함민복 시인의 산문집 <길들은 다 일가친척이다>를 화두처럼 뇌이며 만나는 이들에게 마다 “반가워요. 다 저의 일가친척 되시는군요!” 하는 사랑의 인사를 마음으로 건넵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고 표현한 정현중 시인의 시집에서 발견한 ‘꽃시간’이라는 예쁜 단어도 떠올리며 ‘그래, 나는 걸음걸음 희망의 꽃시간을 만들어야해!’라고 다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지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부탁받은 일들을 깜박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다른 이의 신발을 내 것으로 착각해 한동안 신고 다니던 나를 오히려 웃음으로 이해해 준 식구들을 고마워하며 나도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아량을 배웁니다.

마지막 하나는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흥분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애씁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과 이기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또 한번 자신에게 나직이 일러줍니다. 인간 관계가 힘들어질 적엔 ‘언젠가는 영원 속으로 사라질 순례자가 대체 이해 못 할 일은 무엇이며 용서 못 할 일은 무엇이나’고 얼른 마음을 바꾸면 어둡던 마음에도 밝고 환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 이해인, 「꽃이 지고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